



“일상 속 지역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오페라단 만들어갈 것”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신임 예술감독

“오페라가 시민들 곁에 항상 가까이 있었으면 합니다. 작품을 한두 번 무대에 올리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오페라단이 됐으면 해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공연 제작 및 유통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건립 등 주도적 역할 대응 나서야 겨울 브랜드 공연 등 시즌제 오페라 제작 구상도

지난 9일 만난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신임 예술감독은 양질의 오페라 작품을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자리인 만큼 지역 공연계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오페라단 존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현재 광주 내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립단체가 지역 내에 있다는 건 사업의 주

도권을 가져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페라단이 쌓아놓은 역량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매개는 물론 광주가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9월6-7일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전막 공연은 최 예술감독의 취임 무대라 할 수 있다.

사실주의 오페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르첼로 모타렐리를 지휘자가 지역 내에 있다는 건 사업의 주

카에 참여한 김지영 연출가도 합세한다.

“푸치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올리는 ‘토스카’ 전막 무대는 특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음악성이 입증된 지휘자는 물론 얼마 전 마감된 오디션에 국내외 최고 성악가들의 관심이 몰리는 등 출연진들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정통 오페라의 정수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 예술감독은 이후로도 하반기 예정된 광주-대구 달빛동맹 프로젝트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공연 등을 완성하는 데 몰두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 새롭게 구상 중인 시즌제 오페라에 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광주의 대표적인 겨울 브랜드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세계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라 보엠’은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기를 끄는 ‘호두까기 인

형’ 발레와 함께 ‘겨울 오페라 축제’를 펼쳐내고자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희극 오페라) 등 지금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가 가미된 공연도 올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단으로서 지역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 곳곳에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지하철역 공연이나 오페라 열차 등을 구상 중이에요. 특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와 만들어가는 무대인데요. 소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공연이 공연 문화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퀄리티 있는 레퍼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최명진 기자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도전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대회 개최
내달 9일까지 참가자 접수

국립광주박물관이 제35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동일 연령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다음달 9일 오후 5시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제출된 작품은 대학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력, 묘사력,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해 으뜸상, 비금상 9명 및 솜씨상, 꿈나무상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10월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입상작은 10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에 40여일간 전시된다.

이처럼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술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줄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중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만나다

내달 4일까지 ‘ACC 이달의 소장품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앙아시아 전통놀이를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4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올해 두 번째 ‘이달의 소장품’ 전시를 개최한다.

〈사진〉

ACC는 분기별로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앙아시아 전통놀이 ‘추코(Chuko) 놀이’와 ‘토구즈 코르골(Toguz ko rgool)’에 대해 소개한다.

예로부터 동서 교역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주로 유목민이 거주하고 가축과 돌멩이, 열매 등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유목민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유대관계를 형성해왔다.

‘추코 놀이’는 가축의 뼈를 이용한 놀이로 중앙아시아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이다. ‘추코’는 키르기스스탄어로 양의 발목 복사뼈를 뜻하는데, 몽골에서는 사가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아시크 혹은 아슈크라 불린다. ‘추코’는 율놀이, 말경주, 구슬치기 등 1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놀이에 사용되며 점을 치는데도 이용된다. 2014년 ‘추코 놀이’ 중 하나인 몽골의 ‘사가이 쏘아 맞추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토구즈 코르골’ 역시 중앙아시아 전통 놀이로 카자흐스탄에서는 토기즈 쿨말라, 터키에서는 망갈라라 불린다. 돌멩이나 나뭇조각, 금속조각, 동물 뼈, 견과나 씨앗 등으로 만들어진 알갱이 모양의 8개의 말로 하는 전략 게임으로 202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최명진 기자

동구 매력·유산 찾아 어린이 ‘보물탐험대’ 성료

아시아문화전당 탐방 및 체험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일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동구 특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동구 보물탐험대’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재단은 광주 동구의 매력을 대표할 수 있는 9가지 보물과 근현대적 문화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미래 유산을 주제로 ‘동구 특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동구 보물탐험대’는 동구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한 교육생 200여 명이 7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래이다.

전남대병원어린이집 유아 35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동구 9보(寶)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관람하고 이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개발된 교육 키트와 교구를 이용해 보드게임과 메모리

카드 게임을 진행하며 동구 9보와 미래 유산의 개념을 재미있게 학습했다. 또한, 아시아 대표 작가 쿠사마 아오이의 호박 작품을 따라 만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와 가치를 배웠다.

또한 광주의 대표 치킨 브랜드 ‘아주 커치킨’은 이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치킨을 후원, 시식하는 자리도 마

련했다.

임택 동구청장(동구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동구의 매력적인 9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